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영암 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전달

✎ 김준혁(=호남) 기자 | ⓒ 승인 2026.09.16 15:42

영애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씩



영암 영애원.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폴리뉴스 김준혁(=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영암읍 소재 '영애원'과 '영암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각각 찾아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영암의 이웃들에게 전해진 훈훈한 소식이다.

영애원은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보육시설이다. 영암 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재활복지시설로, 두 곳 모두 지역 복지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상품권은 각 시설의 식재료와 생필품 구입 등 운영비와 복지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명절 대목을 맞은 지역 상권에도 작은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영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농번기 일손 돕기와 아름다운 농어촌 만들기,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등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 네트워크를 넓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혁(=호남) 기자 junjun6816@naver.com